



제1호 / '17.4.14(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mu.kr

2017년 지부교섭 첫 발 뗐다

2차 교섭(상견례) 통해 교섭원칙 합의

1차 교섭 불참 이후 첫 상견례

4월 13일(목) 2017년 지부교섭이 시작됐다. 지난 6일 예정됐던 1차 교섭은 사측의 불참으로 결렬됐고, 이 날 2차 교섭이 첫 상견례 자리가 됐다. 김정태 지부장은 “바람도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어 봄이 왔다는게 실감난다. 노사 관계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며 올해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주문했다. 한온시스템 홍승덕 전무는 사측 대표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금속노조 내에서 대전충북지부가 가장 먼저 타결했다. 노사협력의 저력을 결과로 보여줬다. 올해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슬기롭게 풀어가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섭원칙 합의

노사 양측은 그동안 해왔던 교섭원칙과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교섭 성원의 경우 각 사별로 1인 이상씩 꼭 참석해야 교섭이 진행되도록 했다.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개최
(한온시스템-보쉬-대한이연-한국JCC-코스모링크-KDK)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5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사전 통보한다.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부장급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교섭위원 6인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통보된 교섭위원이 아닐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을 제출한 임원급 이상을 포함하여 각 사별 1인 이상 참석한다.

2017년 지부투쟁 승리를 위해

지부는 올해 투쟁 목표를 노조파괴 금지, 노조활동권리 보장, 임금안정성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로 잡았다.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의 공감대를 전 사회적으로 만들고,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의 투쟁승리를 위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올해 임단협은 사업장 임금교섭이면서 동시에 전 사회적인 임금인상을 만드는 싸움이고,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도 노조활동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투쟁이다. 이제 그 첫발을 뗐다.

2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노사관계도 봄이 오게 만들자

〈양측 교섭위원 소개〉

노 : 1년만에 뵙는다. 꽃도 피고 바람도 따뜻하니 봄이 온 것 같다. 노사관계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노사의 문제는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존중하되 노사 신뢰가 우선되는 관계를 만들자. 올해는 원만하게 조속하게 교섭이 끝나서 노사가 함께 웃는 얼굴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사 : 작년 9월에 마무리하고 7개월 만이다. 지난 7개월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조선 구조조정, 젊은 인력 취업문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등 안보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이렇게까지 위기가 있었나 싶다. 외침 당해도 다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마주 앉아있지만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금속에서 대전충북지부가 제일 먼저 합의했던 걸로 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력이 있고, 결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부교섭이 여러 회사가 모였기 때문에 규모나 지불능력, 여건, 조직문화 다 다르다. 그런데도 공통된 의견을 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쉽진 않다. 작년도 잘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잘하리라 생각한다.

노 : 교섭원칙에 대해서 노측이 얘기하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자. 사측이 제시한 교섭장소 중 다음주 일정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주는 JCC에서 14시에 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사 : 이번 한번만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

노 : 그럼 이번 한번만 순서를 변경하고 다음 차수부터는 사측이 제안한대로 하자. 교섭 개최는 매주 목요일 15시 원칙으로 하고, 노사 간사간에 조율을 통해 변경하는 것으로 채택하자. 조합측 교섭위원은 교섭위원 명단 통보 드린대로다. 사측은 13명을 통보했다. 각 사별 임원급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부장급 교섭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KDK만 부장급 교섭위원 인정했다. 이의 있나? (사측 : 없다.) 그럼 KDK만 부장급 포함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교섭성원은 6인 이상으로 제시하셨는데 조합측은 전체적인 논의와 사용자협의회 안을 조율하려면 전체 사업장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각 사별 1인 이상 6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불가피한 경우, 교섭위원이 아닌 대리인도 위임장을 받아 참석하는 걸로 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사 : 교섭위원 명단에 없어도 성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급이 참석하는 걸로 하겠다.

노 : 임원급으로 하여 교섭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임받아 참석 가능한 것으로 하겠다. 간사, 사회, 서기 등 나머지 내용은 제시한 대로 하겠다.

〈사측 시기 교섭원칙 낭독〉

노 : 이의 없으시죠?

사 : 네

사회 : 차기 교섭은 4월 20일(목) 14시 JCC에서 하겠다.